



관내 동향

□ 사천시의회, 우주항공청 유치 대정부 건의문 채택

- 사천시의회는 12월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‘우주항공청 설립 건의문’을 만장일치로 채택
- 건의문에는 “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연속성 있는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필요하며,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창원과 고흥을 잇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중심에 위치하게 될 사천에 설립되는 것이 경제적이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타당하다”고 주장
-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장, 대한민국국회의장, 행정안전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경남도지사,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 힘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장에 전달

□ KAI, 방위사업청 및 항공우주연구원과 계약체결로 재도약

- 한국항공우주산업(이하 KAI)은 12월 14일 방위사업청과 T-50 계열 항공기에 대한 3차 성과기반 군수지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1년 12월부터 25년 7월까지 3년 7개월로 1,800억원 규모
- 또한 12월 17일 방위사업청과 8,000억원 규모의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사업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26년까지 노후된 백두정찰기 4대를 대체할 기술을 개발할 예정
- 이 외 한국항공우주연구원,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123억원의 개발비로 25년 12월 완성예정인 ‘중형헬기 진동저감을 위한 진동원 능동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발’ 협약을 맺고 차세대 헬기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수리온 시제기에 적용할 예정
- 이로써 KAI는 군 전력 강화 및 헬기 능력 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

□ 켄코아, '2021 일자리창출 유공' 대통령 표창 수상

-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(이하 켄코아)는 지난 1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'2021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'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
- 켄코아는 우주항공원소재, 우주발사체, 여객기-화물기 MRO, 드론 및 UAM(도심항공모빌리티) 등 글로벌 우주항공 사업과 관련 적극적인 투자와 대규모 인력 채용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
- 켄코아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4,000억원 규모의 여객기-화물기 개조 사업을 수주하고 우주개발 등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21년 12월 기준 1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향후 채용을 지속확대할 예정
- 정재한 부사장은 “코로나로 항공업계에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켄코아가 대규모 MRO 사업 수주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”고 밝힘



도내 동향

□ 경남도, 서부경남 3대 발전전략 중 '우주도시' 제시

- 경남도는 12월 29일 서부청사에서 경남연구원 주관으로 '서부경남 발전전략 및 성과확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'를 개최
- 서부경남 10개 시·군의 SWOT 분석을 통해 3대 핵심목표로 미래의 우주를 장악하는 '우주도시',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넘쳐나는 '활력도시', 도시성장과 연계로 함께 발전하는 '복합도시'를 제시하고 실현 방안으로 12개 핵심전략과 15개 선도사업 등 단기 및 중·장기 실행 과제를 제시
- 도는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미래 우주산업 선도도시 선점과 플라잉 모빌리티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항공 ICT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

□ **경남도, 2022년 항공우주 분야에 456억원 투입**

- 경남도는 항공산업 고도화와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항공우주 분야에 45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힘
- 이에 따라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사업, 항공 I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지원 사업, 항공부품 설비·공정개선 등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
- 또한 경남항공산업지원단을 통해 항공기업의 수주 및 수출 증대를 지원하고 항공MRO 인력양성 사업 확대와 전용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추진할 예정
- 도는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부 실시계획 수립 등 우주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여 정부의 ‘2030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’ 목표의 중심기지가 되고자 함
- 이에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1월 6일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, 한국항공서비스(KAEMS), 아스트, ANH스트럭처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남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을 논의함

□ **경남 서부 8개 산·학·연·관 항공우주산업 활성화 협력**

- 경남 서부권 8개 기관, 기업, 대학이 1월 11일 ‘서부경남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략적 업무 협력 협약’을 체결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육성과 고도화에 힘을 모으기로 함
- 이번 협약은 경남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산·학·연·관이 함께하는 유기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사천시, 진주시, 한국세라믹기술원, 국방기술품질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, 경상대, 창원대가 참여함
- 협약에 따라 기관장 중심의 ‘서부경남 항공우주 방위산업 협의체’를 결성하여 정례 운영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와 지원 정책을 발굴해 공동 추진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



국내 동향

□ 하영제 의원, 항공산업발전·안전강화 제도개선 법률안 통과

-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과 「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
- 「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 통과로 항공산업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 적립 및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, 조합원에 대한 용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
- 「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조종사들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발급 제도 실효성 및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조종사들이 스스로 국토부장관에게 신체상태의 저하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함
- 하의원은 “개정안 통과로 국내 항공 부품 제조사의 70%가 밀접해 있는 사천지역의 항공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항공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밝힘

□ 산업부, 우주분야 소부장 조직 개편 · 발전전략 수립

- 산업부는 12월 1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‘민간주도 우주 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’ 발대식을 가지고 우주분야 소재·부품·장비(소부장) 개발 지원을 위해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함
- 본 협의회에는 KAI,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현대차 등 7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며 개발된 우주 소부장 상용화 방안과 기술 혁신 및 비용 절감 대책 마련 등의 역할과 함께 우주 소부장의 수요발굴, 공동연구 기획, 우주환경시험, 사업화 협력 등의 지원 방안을 집중 발굴하여 정부에 전달할 예정
- 산업부는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를 소부장개발사업, 민군기술협력사업,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올 상반기 소부장 연계 첨단 우주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
-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“우리가 만든 소부장으로 제작한 위성이 경제성 있는 국산 발사체로 발사 및 실증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민간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힘



해외 동향

□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발사 후 마지막 관문 넘어

- 미항공우주국(NASA)은 지난 12월 25일 발사된 제임스웹 망원경이 약2주 만에 주반사거울을 완전히 펼쳤다고 발표함
- 이번에 발사된 웹 망원경(직경 6.5m)은 세계 최대 규모로 허블 망원경(직경 2.4m)의 2.7배에 이르며 부품을 펼치는 작업만 50차례에 이룸
- 웹 망원경은 파장이 긴 적외선을 잘 포착하며 빛을 더 많이 모으고 시야각이 넓어 주로 가시광선을 관찰하는 허블 망원경의 약100배, 우리 눈의 100억배만큼 강력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훨씬 더 멀고

희미한 우주 물체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- 한편 웹 망원경의 목적지는 지구에서 약150만km 떨어져 중력의 영향이 없는 라그랑주2 지점으로 1월말쯤 목표 궤도에 도달하고 시험 관측 뒤 올해 6월 이후 정식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
작성일	2022. 1. 13.(목)	보고일	2022. 1. 14.(금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최고봉(055-831-3471)